

임실군 세번째 물리치료실 개소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자리매김

임실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물리치료실을 착착 확충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7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민선6기 공약사항인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사업으로 운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의 문을 열었다.

운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작년에 강진보건지소와 지난 7월 신평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의 문을 연 데 이어 세 번째로 개소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이날 심민 군수와 문영두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운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물리치료실은 관절염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을 치료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기기와 기자재를 완비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물리치료실 운영을 통해 관절염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가을향기 실고 온 국화의 향연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  
내달 6일~9일 축제 장식  
관광객 유치 핵심포인트  
품격 높은 볼거리 선사

가을꽃의 전령사인 국화, 천만송이와 함께하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가 형형색색의 화려한 국화로 물들어 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위해 노랑·보라·분홍 등 저마다의 색을 뽐내는 국화 천만송이를 메인 행사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 전시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국화가 담긴 화분 3만여개가 축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군은 27일까지 국화 이품전시를 마치고, 올해에도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장을 수놓을 국화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 생산한 고품종이다.



임실군이 국화 천만송이를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가뭄과 고온 등으로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군은 엄선된 고품질의 국화를 전시 중이다.

임실N치즈축제에서 천만송이 국화는 전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핵심포인트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가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양하고 재미진 프로그램에 풍성한 먹거리와 더불어 국화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이고 품격 높은 볼거리를 선사하며 완성도 높은 축제를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두 번째로 열린 축제에는 아름다운 국화에 반한 관광객들이 2만명이 몰려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가을의 대표 꽃인 국화를 소재로 한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 타이틀을 내걸고, 더욱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는 국화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가을축제로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거리의 물론 맛과 멋이 있는 '화려한 빛깔축제'로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은 특히 명절 연휴와 맞물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

8m짜리 대형피자를 만드는 '국가대표 양 치즈 피자 만들기'와 유럽풍 코스프레 의상과 피치 캐릭터 의상 등을 입고 펼쳐지는 '유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등 임실N치즈축제의 이슈 프로그램으로 10개 테마에 8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심 민 임실군수는 "천만송이 국화 향기로 가득한 임실N치즈축제에는 임실청정지역에서 자란 압소현우고기도 있고, 치즈 등 각종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분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임실N치즈축제로 오셔서 치즈와 국화가 함께하는 색다른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임실N치즈축제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실N치즈 페스티벌(www.imsifestival.co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순창군 스포츠도시 위상  
연휴에도 전국대회 유치

순창군이 추석 연휴에도 2개의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긴 추석연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고 있다.

순창군에서 열리는 대회는 2017 말레이시아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파견 선발전으로 9월 29일 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개최하고, 10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제1회 강천산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린다.

특히 유소년 야구대회는 57개팀이 이미 참가 신청을 마쳐 대규모 선수단 방문이 기대되고 있다. 통상 야구대회는 선수들은 물론 응원을 위해 학부모 또한 대규모로 방문하는 특징이 있어 지역의 펜션, 민박 등 먼 지역까지 경제파급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이외에도 10월 청주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정구종목)준비를 위한 전지훈련 선수단도 순창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힌 상태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출근해 순창을 방문하는 임원 선수단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 식품안전관리분야  
남원보건소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가 2017년 전북도 식품안전관리 분야 수행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 식품위생사업 평가 3개 분야 10개 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예를 안았으며, 금번 수상하게 된 사업으로는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과정, 식중독예방반장 컨설팅,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실적, 유해식품 수거검사, 업소 점검률 및 적발률, 허위·과대광고관리, 업소점검 태블릿PC 활용도 등의 분야이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매년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차단에 매진했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사전 위생점검과 친절 및 위생서비스 교육으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등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보건소 최태성 소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추방과 식중독 예방에 최우선하여 시민을 위한 최상의 위생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추석 연휴 민생안전 사할

순창군 종합대책 마련  
비상진료시스템 운영

순창군이 올해 최대 연휴기간인 추석명절을 맞아 종합의료반을 중심으로 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편안한 추석나기에 나섰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가 긴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상황실은 총 7개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종합상황실, 쓰레기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재난관리반, 물가·가스대책반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분야는 의료분야다. 군은 지역에 대형병원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연휴기간동안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시스템을 운영한다. 우선 보건 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

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27개소도 지정된 날짜에 근무한다. 또 당직별 병의원 25개소, 당번약국 10개소를 일차별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실도 별도 운영한다. 연휴 비상병의원 및 약국에 관한 문의를 660-5222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편의도 확대된다. 군은 추석연휴인 5일부터 9일까지 하루 5회 운영되던 서울행 고속버스를 1일 6회로 증편 운영한다. 또 순창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 발효소스투어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추석연휴는 어느 해 보다 긴 만큼 혹시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한가위, 온정의 손길 붓물 터졌다

남원시 기업·단체·개인  
햅쌀 120포대기탁 등  
이웃사랑 실천 줄이어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산내면사무소 입구에 소백이 쌓인 백미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산내면 상행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가성정도원 연화사(주지 여강)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보내온 햅쌀(10kg) 120포대(시가 240만원어치).

연화사는 지난 2015년 산내에 자리 잡은 뒤 설립절과 추석명절에 어김없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후원해오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있다.

"신도님들이 보시하는 공양물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벼이 쓸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가벼워지는 방법이지요."

주지 여강 스님은 삼십분을 걸어나와 중행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들러 쌀을 구매할 영수증을 건네 주었다.

여강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웃들이 햅쌀로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잘

차려 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내면 백장마을에서도 한 줍, 두 줍 모은 줄도리쌀 400kg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웃사랑도 이어지고 있다.

중견기업 (주)재성(대표 안광섭)은 300만원을, 익명의 기부자는 20kg들이 백미 20포를 남원시에 기탁했다.

매년 명절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송동면과 수지 송동면에 총 600kg(시가 400만원 상당)을 기부해 따뜻한 명절을 함께했다.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도 27일 나누는 기쁨, 행복추석 맞아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갖고 홀로노인, 조손, 장애인 50가구에 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을가족봉사단,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경 등 10여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